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9월 10일 (토) 제 1889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인터넷 시대에서 청소년 제자 만들기 할 수 있다!

퓨리서치/TGC, 우리가 알아야 할 청소년과 소셜미디어 현황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있겠지만,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와 틱톡이 현재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

기 있는 소셜미디어이다(Teens, Social Media and Technology 2022: TikTok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top online platforms for U.S. teens, while the share of teens who use Facebook has fallen sharply).

우리가 이 통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맺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통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소셜미디어 사용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가 활성화 하던 초창기에 청소년들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 방향을 결정했다. 새로운 앱의 성공 여부는 청소년이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에서 문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콘텐츠들도 청소년 이용자들이 만들고 전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자녀든, 교회 청소년이든, 아니면 우리가 돌보는 청소년이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싶다(5 New Stats You Should Know About Teens and Social Media).

1. 청소년 95%가 유튜브를 사용한다. 그중 19%는 “거의



항상” 사용한다.

사실 유튜브는 전통적 의미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보다는 TV 대체품처럼 보이지만 유튜브는 분명히 소셜미디어이다.

퓨 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나이, 성별, 인종,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섯 명에 한 명꼴로 “거의 항상”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다섯에 한 명이 “거의 항상” 유튜브를 보거나 이용한다. 현재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웹사이트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퓨 리서치의 2021년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1퍼센트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 가히 유튜브는 소셜미디어 세계의 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는 IT 기업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검색엔진이기도 하다.

아마도 미국 청소년의 95퍼센트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2014-15년에는 73%)만큼이나 놀라운 통계는 틱톡 관련 통계일 것이다. 틱톡이 지금의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틱톡의 인기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놀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틱톡이 청소년 사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단기간에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을 추월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사실 6년 전에 퓨 리서치에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틱톡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2. 청소년 67%가 틱톡을 사용한다. 62%는 인스타그램을, 59%는 스냅챗을 사용한다.



인플레이션 사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의 대처 방안 소개

우리는 오늘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환경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 지역 교회 수준에서는 그 영향을 맞닥뜨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언젠간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최근 40년 이상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교회 안의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수수료를 어떻게, 얼마나 인상해야 할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미국 노동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7%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리더로서, 리치 비치(Rich Birch, 목회 생산성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기 있는 연사이자 컨설턴트) 목사는 이런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5 Leadership Hedges Against Inflation for Your Church).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차이점 이해

간단히 말해, 인플레이션은 국가 전체의 지불력을 약화시킨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상품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급여는 이러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 전체가 기존 자원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선종욱 목사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이길호 목사

월드 미션 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기초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중급반: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문 의 714-470-4563

말씀과 기도가 가치

말씀을 묵상하며 컬러를 배우는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O.C.와 L.A. 지역에서 오픈되었습니다.

2022년 제5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2022 5TH WORLD MISSION CONFERENCE

중단없는 선교

God's Mission Never Stops

저녁 집회

- 10월 5일 수: 류승렬 목사,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 10월 6일 목: 최종상 선교사, AMNOS Ministries
- 10월 7일 금: 호기성 목사, 필라델피아교회/PGM 국제대표

선교세미나

10. 6. THU

- 필라델피아교회 PGM 국제대표
- PGM 한국본부장 한국 다민족선교
-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 사향의글로벌비전교회 PGM 부이사장
-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 살렘제일장로교회

10. 7. FRI

-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PGM 제4대 이사장
- 안디옥 스페니쉬교회 PGM 파송선교사
- 안디옥 다민족열방교회 PGM 파송선교사
- 말리안인장로교회 PGM 정책이사
-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 한남을 RTP교회

일 시 2022년 10월5일 (수) - 7일 (금)
선교세미나 및 선교강의 오전 9시- 5시30분 | 저녁집회 오후 7시 30분

장 소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 318 Stage Coach Trail, Greensboro, NC 27409

장 공 화 GSO 공항이음 (GSO 공항이음이 어려운 경우 RDU 공항이음) | 그 외 공항이음시 라이드 개별준비

등 록 비 개인 \$300, 부부 (2인) \$500 (숙식포함) | 지역등록 \$100 (식대포함)

문 의 PGM 국제본부 admin@pgmusa.org

QR 코드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주님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
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
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물론 자신의 존재감이나 유명세를 알려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려주면 위로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알아줌의 실수나 시행착오로 인한 심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악평하고 곡해하고 대적하는 그 기질이 매우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 그리고 내가 크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다고 기가 죽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하거나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지나치게 바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고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들의 그 충성과 그 섬김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CMF 창립 제23주년 음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CMF 선교원 창립 제23주년 축하 음악회 열려

천국은 현재 진행형... 섬기는 모습 아름다워야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8월27일(토) 정오 CMF 회관에서 창립 제23주년 축하 음악회를 열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단체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다스리시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유지 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기사제공: CMF)

인플레이션 사태...

<1면에서 계속> 이것은 우리가 2021년 말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재정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새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서 동안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획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당신의 기부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도록 하거나, 연말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새롭고 참신한 투자 전략 탐색

지난 2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재정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변했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간 예비비를 늘리길 원했다.

4. '예산 삭감이 필요한 요소들' 찾아라

인플레이션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야기되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의 지출 측면을 주의 깊게 볼 때다. 몇 년 전,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시기였을 때, 우리 교회는 아동부에서 만들기 활동에 대한 예산을 줄였었다.

3. 지도력 개발 지출 증가

당신의 팀은 불확실성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다. 월급 인상에 대해 말하는 것



는 것을 알려준 것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눈치챌만한, 그리고 동시에 전체적인 예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가?” 나는 10% 안팎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삭감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인 삭감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5. 기술 업그레이드를 고려하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 이는 우리가 실컷 위에서 나는 이야기들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기술 장비의 구매를 위한 비용을 두 배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피종진 목사 9월 부흥성회
○ 울산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010-5255-7777
God Bless 337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더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하나님 중심으로 삼시다 (삿 9:56~57) 찬 93장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동향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겼고, 건달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망대를 불 지르고 남녀 약 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고 옆에 있던 청년에게 요청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삿 11:1~11) 찬 328장

하나님께서서는 블레셋과 압몬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람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압몬과 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용하십니다. 입다는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때문에 입다를 무시했었습니다.

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배자 (삿 11:29~40) 찬 29장

입다는 압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 인신 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종교심이 깊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을 죽이게 되는 비극 맞았습니다.

목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납시다 (삿 16:19~20) 찬 524장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정도로 힘이 셧습니다.

고, 결국 삼손은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들릴라가 머리털을 밀자 삼손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금 점검합시다 (삿 16:28~31) 찬 352장

머리털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고, 삼손은 양팔로 두 기둥을 부러뜨려 그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으로서 그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토 수명(壽命)이 아닌 사명따라 살아야 합니다 (삿 18:19~20) 찬 520장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그 레위 청년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요나단'(삿 18:30)은 그 사명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의 더 큰 보살만을 따라 가며 살았습니다.

기독교교육 (12)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



김중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성경이 선례들을 제시하며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기관과 프로그램들에게 음악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음악에 관련된 장비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의 강조적인 구성요소에는 개교회의 상황에 따라 많은 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사역, 청지기사역, 전도훈련사역, 선교비전사역, 직업안내사역, 학생사역 등을 위한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이 강조적인 구성요소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독교교육에 연관된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프로그램들의 사역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그것들을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어떤 구성요소는 교회의 본질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로서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부릅니다. 기본 구성요소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회중이 규칙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에는, 첫째, 교회를 이끄는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신자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며,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은 부부, 부모, 자녀 양육, 노인, 독신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청지기사역은 크리스천 청지기들을 개발하고, 교회가 협동 선교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직업안내사역은 크리스천의 직업활동에 관해 성경적인 교회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도합니다. 학생사역은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들이 교회회원이 되도록 인도하고, 사역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지도하고,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예배하도록 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하고, 세계의 문제와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둘째, 성경공부에 관련된 기관과 프로그램들도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경공부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의 교제권으로 인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참여자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사역은 레크리에이션의 방법, 자료,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교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교회가 전체적인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디어 사역을 위해 미디어 장비와 도서관을 제공하고, 미디어 장비와 도서관 사용을 장려하고, 미디어 기술을 가르칩니다. 행정사역은 교회가 사역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제자훈련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들도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성요소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제자훈련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삶 전반에 관해 안내하고, 회원들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회사와 신학과 기독교 윤리와 침례교 정체성 등을 가르치고, 리더들의 사역을 강화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과 사역 중에서 기본적인 요소에 좀 더 치중하고 교회의 자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해 리더들은 모든 구성요소와 그 사역들을 정기적으로 살펴 평가하고, 재정적하고, 재정적해야 합니다.

넷째는 선교를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에 관해 배우며 가르치고, 선교에 동참하고,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와 사역을 생활화하고, 교회와 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의 구성요소는 다양합니다. 크게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강조적인 구성요소와 지원적 구성요소로 구별되고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 그리고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성요소 다섯째는 음악 사역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회중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교회가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고, 교회의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여부(영어부 동일)
1등상: \$500
2등상: \$300
3등상: \$150
장려상: 0명 - 상품
회전소심과 회교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소: 미정(추후 발표)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NIV, KJV(or NKJV) 중 택일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하늘가족

광고후원: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회장: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배공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뉴저지평화기독교원 (김종철 원장), 뉴저지인하스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GOD IS LOVE



키르기스스탄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1. 공동체 사역을 돌아보며

13년 전 2009년에 두 여학생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 살았던 집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갈 때 없는 여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에 집을 사들이고 두 여학생과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 우리 가정이나 두 여학생이나 문화와 생활의 차이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예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 주려고 했는데 결혼 후 교회를 떠났을 때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여학생에게 결혼 이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얼마가 되어서 다시 교회에 돌아

왔습니다. "이라"는 교회 통역관으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의 비전이 13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올리비아, 니끼따)의 엄마가 되어서 그 비전대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흐미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의 비전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두 아이(아라파트, 나자르)의 엄마가 되어있으며, 주님이 13년 전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졌던 비전이 헛수고 가 아니었으며, 주님께서는 그 비전이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는 현지 학생들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짐은 눈이 녹듯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짐의 자리에 사회생활과 대학 생활을 위해서 비취에게 와서 오갈 때 없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긍휼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사역 시작을 위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사역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한 영혼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희 부부에게 주신 사

역이기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희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학생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주일 아침 9시면 교회 문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키르기스스탄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러시아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어를 알지 못하지만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어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기 위해서 안 선교사가 키르기스어로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몇 주일은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 남성 한 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모든 성경 자료를 다 수거하였는데 그 남성이 자료를 보여 달라며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말하겠다고 하고 키르기스스탄 모든 어린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이후 항상 주일마다 교회 문 앞에서 있던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고 지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키르기스스탄은 유행처럼 많은 여학생이 히잡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이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부부가 이 음성에 더 무릎 꿇고 한 영혼을 찾고 또 찾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여름 사역을 돌아보며

1) 교회 수련회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키르기스스탄 사람이라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이스쿨 호수에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시간을 내지 못하고 아픈 성도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함께 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페틀라나 성도는 30년 간 한번도 이스쿨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영을 하며 힘을 얻고 위로 받는 것을 보며 저희들이 기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도는 요즘 예배와 멀리하고 있어서 딸인 이라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여름성경학교
코로나이기에 올해에는 단기선교팀이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삼광교회에서 8월에 오셔서 두 교회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바실리가 교회 문 앞에 있다가 오지 않았던 키르기스 학생들과 드문드문 오던 학생들도 참여해 말

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레닌스카 행복교회는 코로나 이후 오지 않았던 학생과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1. 공동체 사역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복음을 위해 더 무릎 꿇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3. 두 행복교회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4.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현지 사역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다니엘, 아이잔 선교사 올림

캄보디아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캄보디아에서 소식과 함께 안부 전합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8월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코비드로 3년 집을 방문 못해 이번 방학에는 거의 방학을 집에서 보내고 8월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특히, 그동안 코비드로 진행하지 못했던 목회자 연장 교육을 월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금요일 점심 먹고 폐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도움이 없다면 진행할 수 없는 일로 모두가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잘 감당해 주어 학생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가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1. 목회자 연장 교육

(1) 3년만에 처음 진행 25명 참석, 약 10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 분들을 돕는 것이 캄보디아 복음화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시며, 앞으로 이 분들을 사역하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나눠야 하는지에 고민하며, 설문 조사와 대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로 기도하며 다음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2) 이번엔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보다 사실적으로 필요한 전도, 영성 훈련, 개인이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두고 저녁 강의를 하며 본인들의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좋은 시간들이라고 고마워 하였습니다.
(3) 이번엔 저희가 캄보디아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 아주 귀한 간증을 모든 목사님께 듣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곳 캄보디아에 거의 99%가 현지인 목회자는 외부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에 영적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왜 늘 다른 사람을 의존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은 먹을 것이 없으면 밥에 간장만 부어 먹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심일조를 신앙생활 가르친 지금 약70명 교인으로 한달에 \$700 정도의 헌금이 모여져 자립은 물론 다른 교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며 영적으로 힘이 나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믿음으로 가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2. 가을 학기 개강

(1) 8월 23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15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이라는 설교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준비하는 시간임을 강조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는 시간도 가지

며 은혜로운 개강예배도 드렸습니다.
(2) 이번 새롭게 입학한 학생들은 학부 5명(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목회학 석사 2명(페루, 캄보디아), ThM 1명(인디아)으로 점점 주변 국가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소명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3) 전체 등록한 학생은 모두 36명으로 인디아 학생 4명, 베트남 6명, 라오스 2명, 미얀마 1명, 네팔 1명, 페루 1명, 필리핀 2명, 캄보디아 19명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지길 기도합니다.
3. 이번 학기에 함께 하시는 김광철 선교사님: 전번 학기에 약 10일간 방문 하셨습니다 가신 김광철 목사님이 이번 학기를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어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1.5세로 동부 웨스트민스터 출신, 시드 선교회 출신으로 우간다에서 10년간 선교사역을 하시고, 선교 훈련원 원장으로 섬기시다 다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다시 우간다로 가려던 발길을 꺾보

선교 편지



다야로 오게 하셨는데 김 목사님 마음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는 저희 신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며, 영성 훈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4. 체육관 공사 현황: 우기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 없이 일하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상보다 완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우리에겐 물이 풍족하여 살 것 같고, 비가 많이 오면 공사가 늦어지니 고민이나 이 모든 것도

되어지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사할 뿐입니다.
기도제목
1. 가을 학기동안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건강하며 은혜충만하도록
2. 아시아 신학 협의회 (ATA) 인가 받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체육관 건축이 무사히 준공되고 부족한 시공비 (\$18,000)이 채워지도록
4. 김옥경 선교사의 눈물길 질환이 속히 치유되도록
늘 저희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석훈 총장 드림



Latin America Future Mission Strategy and Leadership Forum

남미 기독교 지도자 초청 선교대회

리마 행사 Dec 9-14, 2022 (5박 6일)
 페루 국가 조찬 기도회 Dec 10, 2022
 남미 기독교 지도자 선교대회 Dec 12-13, 2022
 Sheraton Hotel Convention Center, Lima, Peru

선택-쿠스코, 마추픽추 Dec 13-16, 2022 (3박 4일)
 쿠스코 지역 목회자 연장교육 Dec 14, 2022
 잉카의 도시 쿠스코 문화 유적지, 마추픽추 방문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iea@midwest.edu

주관: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Peru
 공동주최: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Midwest University
 협력: 페루 국가미래전략 연구재단, 페루 국립센마르코스 대학교(대학설립 1551년), KWMC, KWMA, KWMF, KIMNET
 협찬: 페루 TV 방송국, CTS TV, CGNTV





인/터/뷰

퀸즈장로교회 김도현 목사

TICI, 위태로운 이민교회,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목회적 연결점을 찾자!

‘전통적 혁신’ ... 1세대(KM) 리더가 ‘전통적인’ 부분 제공하고 2세대(EM) 리더는 ‘혁신’ 부분을 지원하는 혁신적 합동 목회의 실천 가능성 구축

미국 이민의 역사 가운데 미국에 한인교회는 한인들과 삶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 교회의 모습에서 1세대들이 가졌던 신앙의 전통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점을 찾고자 TICI(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S INITIATIVE) 컨퍼런스가 트리니티 신학교

에서 시작됐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한인 이민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문화를 가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소수민족들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번 첫 TICI 연구에 참여하게 된 김도현 목사(퀸즈장로교회 영어예배)를 통해 TICI에서 현재 연구 진행 상황과 발견된 점들을 들어보았다.



TICI 컨퍼런스에 참여한 퀸즈장로교회 팀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TICI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지요?

TICI는 "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S INITIATIVE" 즉, "이민 교회 회중 부흥 발의"를 뜻합니다. Lilly Endowment Inc.는 Trinity의 Paul G. Hiebert Center for World Christian and Global Theology 프로그램인 Thriving Immigrant Congregation Initiative(TICI)를 설립하기 위해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 총 100만 달러의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이 센터는 주로 미국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중국인, 한국인, 나이지리아 이민자 커뮤니티를 섬기는 많은 교회로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TICI에 참여하기 위해 선택된 전국 12개 교회 중 하나입니다. 2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12개의 이민자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연구 과정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가 다른 세대에 걸쳐 발견되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들은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자신들이 속한 지역 밖에 민족들로부터는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목표는, 인종적 경계를 넘어 주변의 타 커뮤니티에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독특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한 지붕 아래 4개 교회(한국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가 함께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 교회는 세대 간, 문화 간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 많은 2세대 영어 사역자들이 이민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만큼 이민교회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TICI를 통해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간 관계 뿐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다른 문화권의 커뮤니티 간의 관계 역시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TICI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우리는 2021년 10월에 TICI 연구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TICI의 핵심은 모든 참여 교회가 1세대 및 2세대 리더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당회장 김성국 목사님과 교육담당 장로 최원일 장로님이 1세대 대표입니다. 저는 EM 담임목사로서 2세대를 대표하고, 교육 목사인 차나다니엘 목사와 두 명의 EM 집사인 제니 황, 김혜린 집사가 영어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TICI 팀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교회의 1세대와 2세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KM과 EM 사이가 견고히 연결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 대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잘못된 편견과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한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추측들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TICI 모임은 함께 이러한 잘못된 이해와 추측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11개 이민자 교회와 TICI 리더십과 함께 매월 온라인 Zoom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이민자 교회들도 함께 이 힘든 여정을 걷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큰 격려와 위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TICI 그룹은 매년 봄과 가을에 두 번 직접 모여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공유하고 세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인 사역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집사인 제니 황, 김혜린 집사가 영어권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다음 달(10월) 시카고에서 두 번째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 TICI 연구과정을 모두 마친 후 어떤 것들이 성취되고 기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사명과 공통적 비전을 향해 힘쓰며 4개의 교회(한국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와 한 가족으로 더욱 가까운 가족과 같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 개 교회 회중 모두에게서 1세대와 2세대 지도자 사이의 건강한 파트너십

을 발전시키고 심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TICI 이사이자 Trinity 신학교의 교수인 Dr. Peter Cha 교수는 "Navigating Future" 책에서 "전통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통적 혁신"의 개념에서 1세대(KM) 리더 구성원은 "전통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반면 2세대(EM) 리더 구성원은 "혁신"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실제 단계에서 우리가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세대(EM)는 1세대(KM)의 목회에 있어서 합동 목회를 하는 가운데 "혁신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발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회중 상황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길의 기초를 닦아 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실질적 행동 단계들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에서 인종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한인 이민교회만이 이러한 1세대, 2세대 간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타 문화권 소수민족교회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되는지요?

TICI에는 한인교회 외에 중국인, 나이지리아인 이민자 교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민족들이고 다른 문화권에 있었지만, 모두 유사한 문화 간, 세대 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민자 교회의 대부분은 1세대와 2세

사이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배워가고 연구하는 이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직면한 독특한 축복과 도전, 즉 1세대와 2세대의 어려움 뿐 아니라 4개 교회가 한 교회로 모이는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세대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이 여정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민자 교회들도 그들의 여정에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함께 연구에 참여한 중년 나이지리아 교회 목사는 "모임에서 자신의 교회 역시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퀸즈장로교회와 같이 1세대, 2세대의 갈등뿐 만이 아닌 네 개의 다른 문화권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어려움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민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은 한인들만이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교회들이 모두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2세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와 이민사를 공부하고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한인 이민교회에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세대는 2세대가 미국에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도전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목회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이견들, 여전히 1세대가 2세대를 어린아이로 보는 시각에 대한 2세대의 고민, 기독교 교육과 자녀 양육에 있어 문화적으로 겪는 갈등 등과 같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이러한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 많은 2세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끼며 이민자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침묵의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EM이 일정 수의 성도로 성장하거나 재정적 자유와 분리를 성취하게 되었을 때, EM 내 장로 임직을 이루게 되는 경우 많은 EM 그룹들이 소속됐던 이민교회를 떠나 독립한 바 있습니다. EM이 분리되는 이유는 EM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 KM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KM과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있어 슬픈 일이었습니다. EM이 분리되 나가거나 밀려나가게 되면 한인교회는 새로운 EM 사역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불건전한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한인 이민교회의 정해진 미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미래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퀸즈장로교회의 경우 한국어권과 영어권만이 아닌 중국어권과 러시아어권 사역이 함께 동역하는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모델이 다른 모든 이민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각 사역마다 미래를 함께하고 한 비전을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며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TICI의 남은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이민교회의 사역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워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북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린 칼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어령 두란노
 내 마음도 설움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